

보도일시 (인터넷) 2026. 7. 2.(목) 11:00  
(지면) 2026. 7. 3.(금) 조간

배포 2026. 7. 2.(목) 06:00

## 선박 길잡이 '국제표준 차세대 전자해도(S-101)' 전 해역에 제공

- 자국 관할해역 전체에 대해 차세대 국제표준 전자해도를 구축한 세계 첫 사례
- 선박 항해의 안전성을 높이고, 해양 디지털 전환의 기반 마련

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(원장 직무대리 차성신)은 7월 3일(금)부터 우리나라 연안 전 해역에 차세대 국제표준 전자해도인 'S-101 전자해도'를 공식 간행한다고 밝혔다.

전자해도는 선박이 바다 위에서 길을 찾을 때 사용하는 디지털 해도다. 자동차 내비게이션이 도로 정보를 보여주듯, 전자해도는 선박 운항에 필요한 수심, 해안선, 암초, 항로, 등대 등 다양한 해양정보를 제공한다.

이번에 공식 간행되는 S-101 전자해도는 국제수로기구(IHO,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)\*가 해양 안전과 디지털 항해환경 변화에 맞춰 새롭게 마련한 차세대 해도 표준으로, 기존 전자해도보다 조석, 조류, 항행정보 등의 정보를 추가로 담을 수 있다.

\* 선박 항해에 필요한 해도 및 해양정보의 표준개발과 관리를 담당하는 정부 간 국제기구로 1921년 설립(한국은 1957년 가입), 104개 회원국 가입

자국 관할해역 전체를 차세대 국제표준 전자해도로 구축·간행한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첫 사례이다. 부산항·인천항 등 주요 무역항과 좁은 수로, 강한 조류, 복잡한 해상교통 환경 등 우리나라 연안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총 808개 구역(Cell)의 전자해도를 동시 제작했다.

아울러, 국립해양조사원은 S-101 전자해도의 서비스를 위해 2026년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실제 선박을 이용한 검증도 마쳤다. 1차 실증에서는 전자해도의 표시와 작동 상태를 확인했으며, 2차 실증에서는 S-100 기반 정보연계 기능 및 서비스 적용 가능성을 점검하였다.

차성신 국립해양조사원장 직무대리는 “S-101 전자해도 간행은 차세대 디지털 항해환경 구축의 출발점으로, 향후 다양한 디지털 기반 해양정보 연계를 위한 기반이 될 것”이라며, “S-101 전자해도의 활용을 확대하는 한편, 국제 수로기구 인프라센터 설립 등과 연계해 국제표준 확산과 해양 데이터 산업화에도 힘쓰겠다.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국립해양조사원 해도수로과	책임자	과 장	김재근 (051-400-4104)
		담당자	사무관	이성기 (051-400-4310)

